

'의료공백 최소화' 적극 대응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용 '맞손'

진안군, 전문 관리의사 선제 배치로 안정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국적인 공중보건위사 감소로 놓여 온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안군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리의사를 선제적으로 확보·배치하며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진안군은 단순한 의료인력 충원을 넘어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의료진 확보에 집중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관리의사 채용 △경력 중심의 시니어 의사 영입 △진북도 지원사업과 연계한 파견 진료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지역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기간제 관리의사를 채용해 백운보건지소에 배치했다. 해당 의료진은 현재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담 등 지역 주민 건강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5월 11일에는 부귀보건지소에 시니어 의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과 연



진안군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리의사를 선제적으로 확보·배치하며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계해 매주 금요일마다 보건소에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받아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운·부귀 지역은 이번 전문 의료진 보강을 통해 주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

리와 기본 진료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진안군은 현재 외과 공중보건위사 6명과 관리의사 3명을 확보해 군민 의료 접근성과 일차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 공백 우려를 넘어 더욱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원광대병원, 협약... 신속한 항공이송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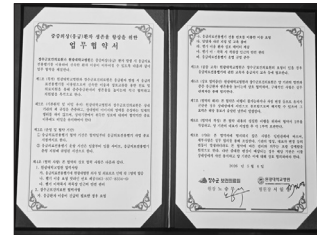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과 중증의상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항공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은 의료진이 닥터헬기에 탑승해 현장 응급처치와 이송 중 전문 치료를 담당하게 되며,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신속한 이송 요청과 환자 정보 제공, 이착륙장 안전관리 등 현장 대응 역할을 수행한다.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생명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의 생존을 향상과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이용 업무협약서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의 생존을 향상과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5명 모집

무주군, 27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5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에 더해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확대 발굴한 것이 특징이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최북미술관 그림책전시실 전시 안내, 구천보건지소 운영 도우

미, 양성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도우미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신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공영버스터미널과 추모의집 등 지역 내 6개 사업장에서 환경 정비·정화,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1만3200원이며 주·연차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교통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하루 5천 원도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부터 74세까지의 무주군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관할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직접일자리 사업 3회 연속 참여자 및 중복 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모집 요강은 무주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무주군 인구활력과 일자리팀 또는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연 30만원 지원

진안군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도비 30%, 군비 70%)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490개 업소가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인 4월 30일 이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과 휴업업·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안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진안군 농촌활력개발생계지원팀(063-430-8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가족센터, 가족정책 분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장수군은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홍선희)가 서울 파연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분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 파연파크컨벤션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가족정책 유공 포상자 및 전국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했다.

장수군가족센터는 지난 2006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출발해 현재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며 지역 가족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성애주기별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취약가정 돌봄 및 상담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센터는 가족 간 소통 증진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상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도 힘써왔다.

홍선희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과 센터를 믿고 참여해주신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가족센터는 가족 형태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촘촘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복지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운문산반딧불이 서식지 현황 조사

무주군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운문산 반딧불이' 서식지 및 출현 여부를 조사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반딧불이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출현이 확인된 36곳을 중심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예상 출현지역까지 확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출현 시간대(오후 8시 30분~오후 10시)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환경은 물론, 개체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다량 출현지역을 엄선해 '반딧불이 신비탐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식지 확대를 위한 연구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된 무주군 지역 내 운문산반딧불이 출현지역은 무주읍 11곳, 설천면 8곳 등 모두 36곳으로 이곳 중 100마리 이상 다량 출현지역은 2곳"이라며 "출현 실체 조사 반딧불이 서식 환경 보존, 서식지 발굴과 확대, 신비탐사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수방서, 관내 선거 관련 시설 17개소 화재안전조사

장수수방서(서장 한동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내 선거 관련 시설 17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수의 군민이 방문하는 투·개표소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1개소), 개표소(1개소), 관내 사전투표소(7개소), 일반투표소(8개소) 등 총 17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비상구 개방 상태 및 피난구 유도등 시인성 확인 △관계인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 대응 요령 교육 등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